

# Hansun Brief

발행일: 2018년 12월 26일(통권80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 민족공조론의 허상 - 우리민족끼리의 함정 -

권순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 목 차

1. '우리민족끼리'는 주체사상의 실천 수단
2. '민족공조'용어의 태동과 전개과정
3. '민족공조론'은 대남적화 통일전략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요약

'우리민족끼리'는 6·15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제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에서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등장하였다. 이 용어는 김정일이 대한민국 국민의 민족정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역이용한 결과물이다. 이후 이 용어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불협화음을 노정시킨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남한 내 '남남갈등'이라는 사회 혼란을 일으키게 한 연원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운 '민족공조론'이 대남적화 통일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미몽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2018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민족끼리' 원칙에서 풀어나가자"고 했다. 지난 11월 4일 금강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남과북 '연대모임 공동결의문'에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담았다. 북한과 주사파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우리민족끼리'는 무엇인가?

'우리민족끼리'는 6·15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제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에서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등장하였다. '우리민족끼리'는 '같은 민족끼리 하자'는 데라는 감성적 함정에 빠지게 하는 용어로, 남북관계를 이성적 판단의 냉정함을 잃게 하였던 용어이다. 이런 감성적 대응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불협화음을 노정시켰으며, 한국 내 '남남갈등'이라는 적전 분열적 사회 혼란을 일으키게 한 연원이 되었다.

### 1. '우리민족끼리'는 주체사상의 실천 수단

'우리민족끼리'는 김정일의 치밀한 계산과 판단으로 이뤄진 선전선동 용어이다. 김정일은 '우리민족끼리'를 대한민국 국민의 민족정서를 대남 혁명의 전략적 용어로 악용하는 한편,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역이용하기 위한 전략적 구사의 결과물이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경제력과 대북 지원을 이용해 경제위기 극복과 체제 붕괴의 위기를 모면하면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견제를 위해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공조 이념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한편 북한은 민족을 주체사상과 결부시켜 1986년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주체의 민족관을

확립했다. 조선민족 제일주의라는 주체의 민족관은 김일성 수령독재 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북한의 '민족공조'는 북한 김정일의 치밀한 계산 속에 반미·친북활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이 대한민국 내 동조세력의 활동공간을 넓히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반미자주의 민족공조를 선동하기 위한 투쟁도구로 활용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반미자주의 민족공조는 북한이 혈연적 민족주의를 기반한 '주체의 민족관'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는 주체민족관의 핵심 테제인 자주성 확보를 위해 반외세 배격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결국 '우리민족끼리'는 주체사상의 실천 수단으로서 김일성 세습왕조의 최고 이념인 '김일성 민족주의'와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15 공동선언에서 발표한 '우리민족끼리'의 개념은 관점과 적용에 있어서 남북한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이 원하는 '우리민족끼리'는 김일성 민족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민족끼리만' 대화와 협력을 잘 해나가자는 것이고, 반면 대한민국은 같은 동포끼리 원만히 대화하고 잘 협력해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는 민족공조 동조화를 통해 김일성 민족주의를 대한민국에 확산시켜 한반도의 김일성민족화 통일을 목표로 하는 이데올로기적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우리민족끼리'를 동일한 언어, 단군의 자손, 단일민족 등 동질감을 공유하는 '같은 민족끼리'라는 의미로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반면 북한은 '김일성민족'을 중심으로 내부적 단결을 꾀하면서 남한 내에까지 김일성 민족주의의 확산을 위해 '우리민족끼리'를 그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민족을 대남 전략

전술적 혁명 투쟁의 도구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 2. '민족공조' 용어의 태동과 전개과정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외세 배격과 반미자주의 '민족공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북한에서 민족공조의 개념은 7·4 남북공동성명의 '민족 대단결론'으로부터 유래된다. 이후 민족 대단결론은 김정일이 1989년 12월 28일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대내외 조선민족의 단결을 처음 제안한 적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1992년 1월과 2월부터 조국통일의 민족 대단결론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4월 18일 김정일의 민족 대단결 5대 방침을 통해 이론화·체계화하였다.

북한은 3대 혁명역량 약화의 위기감에 대한 대응 담론으로 '민족공조'와 '김일성민족'을 강조했다. 2000년 이후 심각한 대외고립과 경제위기,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대응책으로 민족공조전략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후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공동선언을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인 조국통일을 이루자고 온 세상에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강조하였다. 2001년 부시 행정부 등장으로 북·미관계가 긴장되면서 북한은 보다 적극적인 '민족공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 북한은 2002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민족공조'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2002년 핵 위기 이후 북한의 '민족 공조론'은 보다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

이전의 민족공조가 남북통일 맥락과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면 핵 위기 이후 북한의 민족공조는 보다 적극적으로 반미 반외세 민족공조를 주창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전환했다. 즉 북핵위기를 미국과 북한과의 갈등이 아닌, 미국과 '조선민족' 간의 갈등으로 규정하고 민족공조를 반미·반전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국제적 고립 상황에서 민족주의의 긍정성을 보아왔다. 그리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위기상황의 대응 과정에서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후퇴시키고 민족공조론을 외세에 대한 대항논리로 전환했다. 2000년 이후 지속되었던 북한의 민족공조공세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한국정부의 5·24 대북조치로 급격히 후퇴하게 되었다.

## 3. '민족공조론'은 대남적화 통일전략

북한은 민족공조를 통해 남한이 진정한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남북 교류협력 차단장치 제거, 제반 법률 수정 및 폐기 등을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자고 주장한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한반도 전쟁전략에 끌려 다니지 말고 전쟁정책을 폐기하고 긴장을 완화해야 하며, 진정한 민족 공조를 위해서는 남한의 무력증강과 외부로부터의 무기 수입 중지, 외국 군대와의 연합훈련 중지 등 사전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북한은 연평해전과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 DMZ 지뢰 도발 등 군사적 도발행위의 명백한 주체로서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이처럼 도발을 지속하면서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하자는 얘기는 어불성설이 도를 넘는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내적 측면이 외적 측면을 촉진시킨다는 개념으로 민족적 단합을 더욱 중시해 나간다고 공식화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대남전략인 통일전선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레토릭일 뿐이다. 즉 북한이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것은 대남적화통일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용어전술의 일환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등장한 '민족공조론'은 '민족' 개념을 내세우고 한편으로는 북한의 전략적·궁극적 목표인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노선을 변함없이 추구하는 적화통일론에 다름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술적·실리적 목표인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전략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 정권의 '민족공조론'에 담긴 함의를 분석해 보면, 북한의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은 대내적인 체제통합의 논리와 대남 관계의 접근 논리 차원에서 통일전선전략과 결합되어 변용되고 있다. '같은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잘 해보자는 '민족공조론'은 통치이념화 된 정치·이념적 기재로서 오직 '김일성민족'과 '김일성민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개념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이질적인 체제인 전체주의체제 북한의 낭만적민족주의의 허울을 벗기고 감성적인 '우리민족끼리'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